

교회 목표

신앙인 예배
천국입문 양성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
아우 사랑

주간충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니
(시편 18:1)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나니라
(빌립보서 1:21)

대한예수교장로회 충청교회 서충북부서 강남구 역삼동 665-1 ☎ 02-552-8200

© 2004 충현교회

THE WEEKLY CHOONG HYUN

발행인: 김성관 편집인: 조광현 편집: 이태복



새로 태어나는 제2교육위원회

11월 13일부터 고등부·대학부·청년부의 편제 및 집회 시간 변경

지난 3월 정기당회에서 교회는 서리집사 임명 최저 연령을 대폭 낮추어 남자 서리집사는 26세부터, 여자 서리집사는 23세부터 임명을 받고 봉사할 수 있도록 결의하였다. 그리고 5월 12일에 남녀신임서리집사 232명을 임명하였다. 이후 젊은 일꾼들이 교구와 교회학교에 더 많이 투입됨으로써 전체적으로 교회가 활력 있게 되었고, 젊은 일꾼들이 봉사의 현장에서 선배 일꾼들로부터 봉사의 실재를 배우는 효과도 얻게 되었다. 이런 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제2교육위원회의 편제를 새롭게 하고 제2교육위원회 소속 교회학교의 집회 시간도 변경하기로 하였다. 11월 13일부터 실시될 예정인 제2교육위원회의 새로운 출발 위에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주시어 교회가 더욱더 젊어지고 복음의 길을 걷는 걸음 또한 더 탄탄하기를 바란다.

『제2교육위원회 소속 교회학교의 편제 및 예배 시간 변경 안내』

고등부 - 고등 1, 2, 3학년으로 3학년 / 제2교육관 4층

기초에 주일 오전 9시 30분에 모이던 예배를 주일 오전 11시로 늦추며
주요 5부예배를 젊은이들이 드리는 예배에 적극 참여하게 함

대학부 - 고등부 졸업 후부터 27세까지의 젊은이들 / 제2교육관 4층

담당교사와 자제비대로 구성하여 조식을 단순하게 개편함
토요일 오후 2시에 자체 집회를 가짐으로 주일에는 봉사에 전념토록 함

토요일 오후 2시에 2교목, 입신교회, 다른 사당이 있을 때는 대학부에 소속됨
27세 초과자로 대학을 졸업했거나 결혼한 젊은이는 청년 1부나 2부로 소속됨

19교구 - 35세 미만 연령으로 단독세대에 한함

지역청은 고등부 지역청, 대학부 지역청, 청년부 지역청으로 나누어 세움

달고 오묘한 그 말씀(금요일집회) - 천국 복음

제8장 천국, 이스라엘, 그리고 교회

산악을 통해서 보여주신 천국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로서 하나님께서 그의 대적들을 물리치시기 위하여 인류의 역사 속에서 실제로 역사하고 계시며 또 하나님의 통치하심으로 인하여 천국을 인간들에게 친히 가져다주시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스라엘과 신약에서 말하고 있는 교회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천국을 제시하여 주셨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주님은 천국을 전파하려고 제자들을 내어 보내시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예수께서 이 열들을 내어 보내시며 명하여 가라시라 이방인의 길로라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갈릴리 이스라엘 집의 일터버린 양에게로 가라' (마 10:5, 6). 가나안 여인의 간청을 거절하실 때에도 '너는 이스라엘 집의 일터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마 15:24b)라고 말씀하셨다. 한결같이 더 나아가 유대인들을 나라의 본 자손들 또는 '천국의 아들들'이라고 부르셨다. '너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굶어 있으리라' (마 8:12). 비록 유대인들이 메시아와 천국을 배척하였지만 우리 주님은 저들을 가리켜 '천국의 아들들'이라고 부르셨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셨고 또 이스라엘에게 천국의 복을 약속해 주셨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천국은 선택 받은 자의 권리와 사후의 유업으로 볼 때 이스라엘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을 대상으로 복을 하시고 이전부터 약속했던 천국의 복을 베풀어하셨던 것이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천국을 배척하였을 때에 저들에게 주시기로 약속되었던 모든 축복이 천국을 얻는다는 자들에게 주어진다. 율법과 선지자의 세대는 세례 요한의 때로 끝났고, 그 때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사람들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 '세계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땅을 당하나니 칠노하는 자는 배웠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의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 (마 11:12). 이스라엘은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회칠 때에도, 또 예수님께서 친히 천국의 복을 베풀어 주시며 받으라고 권고하실 때에도 응답하지 않고 고개를 돌렸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고 비유진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개 동무를 불러 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출중지 않고 우리가 책망하도 너희가 가슴을 닫지 아니하였나 함과 같노라' (마 11:16, 17). 자기들의 고집에 만족한 것으로 고집쟁이들이 그들에게 남은 것은 심판뿐이다 (마 11:20). 그리고 그 심판은 소돔 땅에 임했던 심판보다 더 크고 두려운 것이다 (마 11:22).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받으라는 초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초대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부여된 것이다 (마 11:28-29). 구약 시대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한 가족, 한 민족으로 취급하시고 그들에게 땅의 복과 종교적인 복을 모두 주셨다. 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은 이스라엘 민족과 맺어진 것으로 이방인이 이 언약의 축복을 받으려면 이스라엘 백성으로 귀화해야만 했다 (창 17:23-27).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주시려는 하나님의 나라

오늘, 제7차 성찬식

주일부~5부 예배 시에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고전 11:26).

제3차 청지기훈련

은혜 중에 마치

지난 10월 29일, 믿음의 소리라는 주제로 열린 제3차 청지기훈련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행되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사모하여 모인 4,900여 명의 성도들은 분당 2,3층을 가득 메우고도 자리가 부족하여 많은 성도들이 3층 통로에 깔판을 깔고 앉아서 말씀을 들어야만 했다. 이 번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믿음으로 끝까지 감당하는 선한 청지기들이 되시기를 바란다.

(권기성 기사 4-6면)

는 정치적인 나라도 아니고 민족적이거나 물질적인 축복도 아니다 (요 6:15, 51, 53, 54, 56). 예수님은 각 개인을 향하여 말씀하신다. 예수님과 의의 새로운 관계는 오직 개인적으로 결정을 내리고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만 가능하다. 그래서 서로 요한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사실이 천국의 복을 받기에 합당한 조건이 될 수 없다고 유대인들에게 선언하였다 (마 3:7-10). 그러므로 비록 옛 언약을 받은 약속의 자손이라도 각 개인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순종하여 세례를 받지 않으면 천국의 복을 누릴 수 없다 (마 10:34-36).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는 더 이상 가족 단위에서 이루어질 수 없다. 그러므로 때로는 얽혀 있는 가족들 간의 줄을 끊어버릴 수밖에 없고, 심지어는 친척 관계까지도 끊어버릴 수밖에 없는 개인의 신앙이 하나님 나라와 맺는 관계의 가장 근본적 기초이다. 전체적으로 볼 때 유대인들은 이런 새 관계를 거절하였지만, 어떤 유대인들은 이것을 받아들였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 그리고 이들이 핵심이 되어서 '교회'를 형성하였다. 마태복음 16장은 하나님의 새 백성, 즉 교회를 형성하는 주님의 목적을 보여준다. 예수님이 정말로 메시아이심을 제자들이 알 때까지 예수님은 그 목적의 목적에 관하여 일점 언급하지 않으셨다. 이를 보전해,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고백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나라를 현존한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메시아의 사명이 인간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다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제자들이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인정하는 데에는,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 가운데 현존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다. 왜냐하면 그 당시 그들은 메시아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님의 모습과 예수님이 가져왔다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기대와 전혀 다른 모습이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그 즉시 이 땅에 있는 모든 아들이 다 소멸되리라는 기대를 잔뜩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가져오신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대가 계속 진행되어가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인간들 사단의 통치와 사슬에서 풀려나기 위하여 사단의 영적으로 침범해 들어온 그런 나라였다. 또한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용맹스러운 왕이거나 초인적인 존재로서 큰 권세와 영광으로 하늘로부터 이 땅에 와서 모든 악한 것들을 쳐서 멸하고 권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다 줄 존재였다 (마 7:13-14). 그러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아주 평범하고 겸손하며 낙담한 한 사람으로 나타나고, 비록 불라운 기적을 많이 행했지만 그렇로서는 제자들이 메시아라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기도 예수님께 배역을 느낀 사람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왕으로 세우려 했으나 예수님은 그들을 피하셨다 (요 6:15).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명은 이 시대를 당당히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 세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서 잠입한 새 세대의 권능을 가져다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요 6:51-53). 이런 예수님에게서 실망을 느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가기 시작하였다 (요 6:66). 주님이 이 땅에 계실 그 당시 사람들은 이사야 53장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다. 메시아가 고난의 종으로 오실 것을 전혀 기대도 못했고, 그래서 예수님께 등을 돌리고 그를 따르기를 거절했던 것이다.

CONDITIONS OF CHRISTIAN LIFE

“These things I have spoken to you, so that in Me you may have peace. In the world you have tribulation, but take courage; I have overcome the world.” (John 16:33)

Before Jesus ascended into heaven, He told His lovely disciples to expect tribulation as a sure condition of earthly life, but that in Him they would have peace. Conditions of life are very, very important to people. Cultural, economical, environmental, political, and social conditions control our society. People like to move to areas with good living conditions. They search for places that have better houses, schools, shopping centers, and entertainment. They want to live in exclusive communities that urban development and its consequent employment opportunities produce. Even in the very best neighborhoods, believers still experience awful living conditions, just as the Son of God mentioned. I hope the members of Choong Hyun recognize and relate to the words that Jesus Christ spoke in today's Bible verse. We are always looking for better conditions, but as you live this life as a Christian, you have to accept what the Lord God said. You have to realize the terrible conditions of Christian life.

Living in a dark world, Christians live among lions. In Psalm 57:4, David prayed, “My soul is among lions; I must lie among those who breathe forth fire, even the sons of men, whose teeth are spears and arrows and their tongue a sharp sword.” Have you had similar experiences? If not, you had better think about it, and ask yourself whether you are a real Christian. 1 Peter 5:8 tells us, “Be of sober spirit, be on the alert. Your adversary, the devil, prowls around like a roaring lion, seeking someone to devour.” Have you encountered this evil lion? Christians must constantly defend themselves with their faith. You need to humble yourself under the mighty hand of God, so that He may exalt you at the proper time. You must put all your trust in Him because He cares for you. 1 Peter 5:9 instructs us to resist the devil and stand firm in our faith, “knowing that the same experiences of suffering are being accomplished by your brethren who are in the world.” You are not alone in your sufferings for Christ. Other Christians face the same conditions. Be confident in the knowledge that faith always leads to victory. Proverbs 28:1 says, “The wicked flee when no one is pursuing, but the righteous are bold as a lion.”

Living in a dark world, Christians live among thorns and scorpions. When God called Ezekiel to minister to the sons of Israel, He told him, “And you, son of man, neither fear them nor fear their words, though thistles and thorns are with you and you sit on scorpions; neither fear their words nor be dismayed at their presence, for they are a rebellious house” (Ezk. 2:6). All too often, we read the Bible saying, “Yes, yes,” but when we actually face difficult situations, we try to escape them instead of dealing with them. There is no need to fear thorns and scorpions. They may appear quite scary, but there is no need for worry. God told Ezekiel, “But when I speak to you, I will open your mouth and you will say to them, ‘Thus says the Lord God.’ He who hears, let him hear; and he who refuses, let him refuse” (Ezk. 3:27). God enables believers to handle all situations, no matter how thorny or poisonous.

Living in a dark world, Christians live among wolves. When Jesus commissioned the seventy, He said to them, “Go; behold, I send you out as lambs in the midst of wolves” (Lk. 10:3). Are you willing to go where Jesus orders? We need to be aware of the dangers, but we need not fear them. Jesus told His disciples, “Behold, I send you out as sheep in the midst of wolves; so be shrewd as serpents and innocent as doves” (Mt. 10:16). Far too many believers think that walking with Jesus means never having to face bad situations. Walking with Jesus means that you will most assuredly face tribulations, but not alone, or without heavenly power. Paul specifically told the elders of Ephesus, “I know that after my departure savage wolves will come in among you, not sparing the flock” (Acts 20:29). Believers need to be cautious, especially of religious leaders who pretend to know Jesus. They are like wolves in sheep's clothing.

Indeed Christians live among lions, thorns, scorpions, and wolves, but they live among God's angels too. While we reside here on this earth, I am telling you that God's angels do watch over and care for us. When Elisha's servant saw the king of Aram's army surround the city, Elisha told him not to fear, for those who were with him were more than those who were with them. Elisha prayed for God to open his servant's eyes so that he could see what Elisha saw, “And the Lord opened the servant's eyes and he saw; and behold, the mountain was full of horses and chariots of fire all around Elisha” (2 Ki. 6:17). Proverbs 34:7 says, “The angel of the Lord encamps around those who fear Him, and rescues them.”

Jesus' words from today's Bible verse tell us that in Him we have peace. The Lord Jesus protects us, “As the mountains surround Jerusalem, so the Lord surrounds His people from this time forth and forever” (Ps. 125:2). In Jesus, we are secure at all times, in all dangers, and in all circumstances. Psalm 91:4 says, “He will cover you with His pinions, and under His wings you may seek refuge; His faithfulness is a shield and bulwark.” Jesus told His disciples, “Do not let your heart be troubled; believe in God, believe also in Me” (Jn. 14:1). Right before He departed, Jesus also told His disciples, “I am with you always, even to the end of the age” (Mt. 28:20).

My dear friend, if you believe in Jesus Christ, you have to practice your faith. If you compromise, even just a little, you will not be able to see and feel the lions, thorns, scorpions, and wolves that live among you. If your faith is real, you will find comfort and confidence in the Lord God being on your side forever and ever, and in His angels covering you. If God is for us, who is against us? Paul told the Romans, “For I am convinced that neither death, nor life, nor angels, nor principalities, nor things present, nor things to come, nor powers, nor height, nor depth, nor any other created thing, will be able to separate us from the love of God, which is in Christ Jesus our Lord” (Rom. 8:38, 39). Amen. ■

【다음 주일 설교】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것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요 16:33)



김성만 목사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사랑하는 제자들을 불러놓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환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 사느냐 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문화적인 환경, 경제적인 환경, 생태학적인 환경, 정치적인 환경, 사회적인 환경들이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삶의 환경이 좋은 곳으로 이사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더 좋은 집과 학교, 더 좋은 쇼핑센터와 여가시설이 있는 곳을 찾고 있습니다. 도시가 발달하고 그에 따라 일자리가 많아지면 그런 지역에는 다른 곳에서 찾아볼 수 없는 여러 가지 이점들이 많은데, 사람들은 그런 지역에 가서 살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이웃들 사이에 살아도 신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아주 끔찍한 환경을 여전히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오는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깨닫고 믿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항상 더 좋은 환경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처하게 되는 무수한 환경들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사자들 가운데 사는 그리스도인들

영적으로 아무도 세상을 사는 동안에 그리스도인들은 사자들 가운데 삽니다. 시편 57권 4절에서 다윗은 기도합니다. “내 혼이 사자 중에 처하며 내가 불사르는 자 중에 누웠으니 곧 인생 중에서 저희 이는 창과 살이요 저희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여러분에게도 이와 같은 경험이 있습니까? 만일 이와 같은 경험이 없다면 심각하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말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은 이와 같이 악한 사자를 만나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자기 자신을 늘 지켜야만 합니다. 여러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아래서 겸손해야만 합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여주시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늘 돌봐주시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9절은 우리에게 믿음을 굳게 하고 악한 마귀를 대적하라고 명하면서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았나니.” 여러분만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 받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그리스도인들도 여러분과 똑같은 상황에 있습니다. 언제나 믿음이 이기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확인하십시오. 잠언 28장 1절은 말합니다. “악인은 쫓아 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리라.”

가시와 전갈들 가운데 사는 그리스도인들

영적으로 아무도 세상을 사는 동안에 그리스도인들은 가시와 전갈 가운데 삽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록 가시와 전갈의 선지자로 세우시지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아 너는 예복 가시와 전갈과 함께 처하며 전갈 가운데서 거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 말고 그 말을 두려워 말지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며 그 얼굴을 무서워 말지이다”(렘 2:6). 우리는 얼마나 흔히 “야만! 야만!”을 외치며 대며 성경을 읽는지요! 그러나 실제로 어려운 상황을 만나게 되면 우리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어려운 상황과 대면하지 않고 할 수 없을 것으로 피해 보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그러나 가시나 전갈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겔로 보기에 그것들은 무서워 보여도 사실 걱정할 것들이 전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소겔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와 말할 때에 네 입을 열리니 너는 그들에게 이끼를 주며 여호와와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임이니라”(렘 3:27). 하나님께서는 신자들에게 능력을 베푸셔서 모든 상황을 해결해 나갈 수 있게 하십니다. 그 상

황이 아무리 가시가 많고 독이 많은 전갈 같다고 해도 말입니다.

늑대들 가운데 사는 그리스도인들

영적으로 아무도 세상을 사는 동안에 그리스도인들은 늑대들 가운데 삽니다. 예수님께서는 70인의 전도대를 파송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갑자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떤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눅 10:3). 예수님이 여러분을 어디로 보내든 즐거움 마음으로 가시렵니까? 우리 앞에 놓여있는 어려움들을 알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 같이 지혜롭고 비둘기 같이 순결하라”(마 10:16).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은 어려운 일을 전혀 당하지 않는 삶이라고 착각합니다. 아닙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면, 거의 틀림없이 환난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때 여러분은 결코 혼자 아니며, 하늘의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특별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떠나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애까지 아니하”(행 20:29). 신자들은 조심조심 살아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잘 아는 것처럼 무기는 종교 지도자들을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양의 웃을 같이 있을 뿐 그 속은 늑대들입니다.

하나님의 천사들 가운데 사는 그리스도인들

그리스도인들은 사자들, 가시와 전갈들, 그리고 늑대들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들은 하나님의 천사들 가운데서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천사들이 우리를 지켜 주고 돌봐줍니다. 엘리사의 사환은 성을 포위하고 있는 아람 왕의 군대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자신을 돕는 사람들이 아람 왕의 군대보다 더 많으므로 두려워할 것 없다고 말했습니다. 엘리사는 자신이 보고 있는 것을 자신의 사환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그의 눈을 열어주시길 기도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사환의 눈을 여시매 그가 보니 불발과 불뿔까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돌렸더라”(왕하 6:17b). 시편 34장 7절은 말합니다. “여호와와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지고 저희를 건지시도다.”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가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다고 말해주는데,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루고 같이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킴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리로다”(시 125:2)라는 말씀처럼 주 예수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어떤 어려움 속에서든, 또 어떤 환경에서든 우리는 언제나 안전합니다. 시편 91편 4절은 말합니다. “내가 너를 그 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 날에 아예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 방패가 되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요 14:1). 하늘로 올라가시기 직전에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마 28:20).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신다면 여러분의 믿음을 실천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과 조금만 타협을 해도, 여러분은 여러분 가운데 살고 있는 사자들, 가시들과 전갈들과 늑대들을 보거나 느낄 수 없을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의 믿음이 진대하면, 여러분은 영원토록 여러분 곁에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 안에서, 그리고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천사들을 안에서, 위로와 확신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니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임이나 감금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롬 8:38, 39). 아멘. ■

권사칼럼

성찬을 준비하는 기쁨



김석옥(권사, 성대부 차장)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나를 기념하라”라고 말씀하시며 정해 주신 성찬식! 이 세상 그 어떤 예식보다도 귀한 성찬식에 쓰일 떡과 포도즙을 정성껏 준비하다보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정말 가까이서 뵈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 성대부원들은 성찬을 준비하는 기쁨과 감격이 남다르다. 몇 해 전부터 우리 교회는 성찬식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일년에 7회(홍수 달 첫 주일과 고난주간 금요찬양집회 시에)에 걸쳐 실시하고 있다. 설교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 복음을 늘 듣고 있지만, 주님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잔을 직접 먹고 마시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더욱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된다. 우리에게 이런 기쁨의 기회와 잔치를 허락하신 예수님이! 정말 감사하다.

성찬식이 귀하고 소중한 만큼 성찬식을 준비하는 모든 과정도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은혜롭게 진행된다. 현재 성대부에는 52명의 권사님들이 6개조로 나뉘어 있는데, 성찬식이 거행되기 훨씬 전부터 기도로 준비를 하고 몸과 마음을 정하게 관리하며 경건한 시간을 보낸다. 성찬식이 있는 주일 바로 앞 금요일 저녁에는 떡을 다 준비해 놓고, 포도즙은 8월 말에 1년 쓸 분량 약 120 상자를 깨끗이 씻어 포도즙을 미리 담가두었다가 사용한다. 토요일 오전 10시에 목사님, 장로님들 모시고 먼저 예배를 드리고 떡을 썰어 한 판에 45개씩 약 230개의 떡 그릇을 준비한다. 포도즙을 잔에 담은 작업은 분량을 정확하게 맞추어야 하는 만큼 세심한 집중이 필요하다. 각각

의 잔에 담긴 포도즙의 양을 정확하게 재면서 포도즙 15,300잔을 준비하면 성찬을 위한 준비는 끝이 난다.

성찬을 준비하면서 우리는 고린도전서 11장 23절 이하의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성찬식이 형식으로 흐리지 않도록 준비할 때마다 새로운 각오로 임한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고전 11:23-26). 처음에는 엄숙하게 준비하고 떨리는 마음으로 행하던 일도 시간이 흐르면서 계속 반복되다보면 어느새 익숙해져서 이전처럼 엄숙하게 준비하지도 않고 떨리는 마음도 없이 대충 형식적으로 하기가 일수이다. 그러나 주님의 죽음을 기념하는 성찬식을 어찌 그렇게 소홀히 대할 수 있을까? 늘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셔서 매번 성찬식에 참여할 때마다 처음 성찬식에 참여할 때처럼 거룩한 기도와 열심으로 성찬하게 해달라고 기도한다. 충헌의 모든 성도들도 같은 마음으로 성찬식에 임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치기후론을 마치고

내 길을 인도하시는 내 주인되신 주님!

이번 정치기후론은 나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예수님은 보잘 것 없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내리셨다. 자기 자신이 잘못하고 하는 더럽고 추악하고 교만한 우리를 위해 오신 것이다. 하나님과 우리는 천지(天地) 차이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그저 한 인간으로 생각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면서. 하지만 예수님은 절대 흠이 없는 의인, 아니 신이라고 해야 한다.

또, 예수님은 인간과는 달리 겸손하신과 모든 사람을 사랑하신다. 겸손하시니까 세리 같은 부패한 사람들과 다 많이 계셨던 것 같다. 한대생들로는 예수님이 자기와 같은 인간, 아니 자기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며. 그래서 예수님을 격어야 한다고 생각했고 한때는 같은 인간으로 생각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어찌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못할까? 이것이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 교회의 법을 믿고 자신의 지식만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였다.

하나님은 얼마나 속상하셨을까? 또 얼마나 무안하셨을까? 자기가 만든 창조물이 자기에게 도전장을 내밀었으니. 예수님은 결국 그들을 피하셨다. 예수님은 쉬셔야 했다. 아무리 신이라고 해도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기에 피곤하셨으리라 생각한다. 하지만 주님은 그곳에서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다. 잃어버린 한 영혼을 위해 그 낯선 땅에 간 신이었다. 이 낯선 땅은 이방인이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는 곳이었다. 이스라엘을 바알의 길로 빠져들게 했던 족속이 있던 곳이었다.

그러나 주님은 이 사람들을 사랑하셨다. 그리고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것이다. 나에게서는 이런 의문이 생겼다. ‘영혼의 사랑, 그리고 이스라엘의 죽으심을 과연 난 이해하고 있는 것인가?’ 그 수심킬로 먼 곳까지 자신 주님의 사랑을 난 알고 있는 것인가? 사실 난 내가 이방인이라고 생각하면 적이 없었다. 모태신앙이고, 또 우리나라에 종교의 자유가 있기에 난 나 자신이 이방인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다. 맞다. 난 주님께 구원을 받은 사람이다. 하지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난 주님께 버린 사람이다. 주님이 자비를 베풀어 날 구원해주신 것이다. 그래서 난 늘 주님께 감사해야 하며 주님 뜻대로 따라가고 순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원래 나는 늘 교만에 빠져 있었다. 내가 부패한 것이 없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번 정치기후론을 통해서, 수로보니게 여인을 통해서 나 자신을 다시 한 번 점검하게 되었다.

수로보니게 여인은 여가까지의 나라는 전혀 다른 사람인 것 같다. 난 하나님께 간구해서 하나님님이 안 들어주시면 하나님께 짜증낼 때가 많았다. 실제로 내가 헤드린 것이 무엇이 있다고... 그러나 수로보니게 여인은 달랐다. 예수님이 아주 차갑게 대하시도 그녀는 주님께 더 간구했다. 예수님이 이방인을 개라고 하셔도 그녀는 그것으로 인해 더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했다. 그녀는 예수님이 자기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다고 했다. 솔직히 내가 그 때 그 수로보니게 여인이었고 내 딸이 귀신들렸다면 얼마나 속상했을까? 그리고 주님이 차갑게 거만히 계셨을 때 얼마나 애가 났을까?

하지만 그녀는 포기를 하지 않았다. 자기 딸을 포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주님임을 믿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믿음으로 주님께 대담했다. 주님은 다 듣고 계셨다. 절대 주님은 외면하지 않으셨다. 지금도 그렇다. 혹시 주님이 자기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면 주님을 원망하지는 않았는지... 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앞으로는 늘 주님께 간구하고 주님을 원망하지 않기로 했다. 왜냐하면 주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기 때문이다. 그리고 내 앞길을 인도하시는 내 주인이시기 때문이다.



강지나(소년부)

정치기후론을 마치고

내가 찾던 답

새가족음악부 4주차인 저는 그야말로 이리적이고 속된 자임을 고백합니다. 그 동안 저에게는 커다란 사건이 있었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몸매 휘감기 벗차오르는 이상아릇한 호르몬과 기쁨이 그리고 제게 일어나는 많은 변화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임을 감शी히 여깁니다. 하지만 그러한 것들이 제가 원하는 궁극의 답은 아니었습니다. 나로부터 그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새벽으로, 여러 집회들로 여기저기 뛰어 다니고 그에 대한 갈망은 다해만 갔습니다. 제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영접받고 있는지는... 저의 모든 것을 내던지고 하나님께 올무였으며 걸림 수 있는지는... 주님을 주님이라 칭하고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지. 자만과 오만으로 통쳐 살아왔던 지난날의 저로서는 크나큰 숙제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저 마음과 생활의 변화에서 오는 감사의 기도만을 드리고 있던 제게 숙제를 풀 수 있는 기회가 열렸습니다.

3주 정치기후론에 임하여 깨닫듯 먼 옛날의 저주받은 가나안 족속의 한 여인으로부터 뉘뉘수를 사정없이 얻어맞았을을 고백합니다. 자식 사랑하는 어머니의 심정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나, 그 냉정하고도 가혹한 주님의 희락에도 불구하고 사단의 커러운 자식이기보다는 차라리 주님의 개가 되는 것을 행복하게 여기는, 예수님에 대한 온전하고도 놀라운 믿음에 대한 주님의 계획된 사랑을 보며 그동안 가슴 한편을 틀어막고 있던 답답한 질문들이 시원하게 풀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를 통하여 온전한 믿음의 승리를 알게 하시려고 저의 삶을 계획 하심을 다시 한번 믿게 되었습니다.

저렇게 다한번 간구하며 매달리는 믿음이 내게 있단가? 다시 한번 들켜 보고, 우리가 얻어야 할 것은 주님으로부터의 막대한 은혜가 아니라 종이 되고 개가 되어도 감사하는 신실한 믿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찾던 답이었습니다. 이제 주님께 간절한 기도로 매달리겠습니다. 저주받은 가나안의 여인이 그러했고 야곱이 한도파가 위풍되도록 썬을 하였듯이 말입니다. 그리고 저를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품에 온전하게 들어서게 하신 모든 분들을 감사의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김근현(천년2부, 새가족부)



주님의 은혜를 돌아보며

저는 어머니의 많은 기도와 권유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멀리하다가 대생일이 되어서야 조금씩 예수님의 존재를 제 안에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고향을 떠나 서울에서 만난 대학 친구 덕분에 천주교회에 다닐 수 있었습니다. 1년 반여의 기간 동안 교회에 다녔고 세례를 받았습니니다. 더불어 저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던 중 겨울이 풀이준 친구의 권유로 한 단기 선교일에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부끄럽고 나약한 자를 스스로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두렵고 떨렸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다불이 준비 모임을 가지며 선교지를 향해 조금씩 나아갔습니다.

준비할 시간도 그 나라의 언어도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감당하고 채울 수 있는 것은 기도뿐이었습니다. 처음 선교지에 도착해서 현지 사람들에게 다가갔을 때 막히는 언어 때문에 당황하고 낯선 상황 때문에 어색하기만 했습니다. 준비가 부족한 것 같아 주님 앞에 부끄럽고 죄송하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부족한 저희들, 찬양과 율동과 짧은 언어를 통해 많은 어린이들과 함께 복음을 나눌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곳에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저 본인들의 선행과 막연한 하나님에 대한 기원으로 구원을 확신하는 정교도인, 오랜 기간 기도하고 말씀을 읽었지만 참 믿음을 얻지 못했다는 사람들, 그리고 여호와의 증인 같은 이단에 빠진 사람들 등 잘못된 믿음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만나면서 내가 참 진리를 알고 믿으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 또 그 믿음을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 정말 큰 은혜임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10명의 팀원들과 동고동락하며 주님의 사역을 이루어가는 준비과정에서는 마치 깨닫지 못했던 나 자신의 교만과 인내하지 못함을 보게 되었습니다. 비록 단기간의 사역을 위해서도 팀원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과 나 스스로를 낮추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나의 그러한 부족함과 죄성들은 오직 주님께 영광 돌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배우는 것으로만 이겨낼 수 있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이제 사역을 마치고 돌아가는 마지막 밤입니다. 어쩌면 저는 하나님의 증거로서 눈에 보이는 기적을 기대했었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 저는 지난 10여 일간의 사역을 돌아보며 그 동안 전도지를 읽으며 눈물을 글썽이신 할미마마의 만남, 영육이 모두 지쳐 누워있던 양로원 사람들과의 만남 등 모든 순간들이 하나님의 역사였음을 느낍니다. 그 어떤 눈앞의 기적보다 더 값진 체험이었고 믿음이 성장한 시간이었으며 많은 이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이렇게 부족한 저를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값진 일에 주시길, 그것으로 인해 참으로 은혜롭습니다.



조경영(대학부)

내 삶의 작은 변화

처음 가는 선교였다. 그런데도 선교지가 낯설지 않고 우리나라처럼 느꼈다. 처음에는 여행 같은 느낌으로 선교지에 갔는데 전도를 하는 동안 주님께서는 그런 나의 마음을 바꾸셨다. 주님을 모르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게 되었고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나에게 기쁨이 되었다. 부족한 나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꼈다.

선교지 영혼들의 눈빛이 아직도 기억에 남는다. 내가 전해준 전도지를 자제히 읽는 사람을 보고, 그 사람 마음에 예수님이 임하기를 기도했다. 전도지를 반자마자 바닥에 내팽개치는 사람들도 있었다. 처음에는 그런 사람들에게 화가 났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그들을 위해 더 많이 기도했다.

선교를 다녀와서 많은 것을 느꼈고 따라서 내 삶의 작은 변화가 있었다. 주님을 특정한 때만이 아니라 삶 가운데서 전해야 한다는 생각과 하나님께 더 쓰임 받기 위해 말씀과 기도로 준 비배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다. 외국에 가서 예수님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내게 더 중요한 것은 내 주위에 있는 영혼들을 전도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나에게 맡기신 영혼들을 항상 기억하며 기도하고 예수님을 믿도록 열심히 전해야겠다. 선교기간 중에 함께 하였고 지금도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조예(중등1부)

“할례 아니한 것을 드러내라”(창 2:16)

나를 통해 복음이 전해지는 놀라운 역사와 하나님의 영광이 이국 땅에 퍼지는 것을 보고 싶고 선교 팀에 들어갔습니다. 이 세상 지식으로는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이기 수도 없는 그 복음을 과연 이방인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궁금했습니다.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의 복음을 생명을 통해 믿게 되는 과정을 보고 싶었습니다.

처음에는 팀 준비 기간이 너무 짧은 데다 선교가 처음인 사람들이 대부분이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날이 지날수록 성령 안에서 팀원이 하나 되며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 다듬어져가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전하러 가는 나라 또한 잘 예비된 나라임을 확인했습니다. 우리민족도 연합한데 열강들 사이에 끼어 있어 한이 많았지만, 주께서 택하신 우리민족에게 복음을 드러내셨습니다. 그 나라도 마찬가지로 큰 환난과 내전을 겪는 등 열강들 사이에 끼여있어 한이 많은 나라입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그나라 역시 우리나라처럼 주의 도구로 쓰실 것입니다.

저는 그곳에 가기 전부터 도착할 때까지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고전 2:2)는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 외에 내가 붙들고 있는 다른 것들이 있다면 내려놓고 가난하고 겸손케 되길 기도했습니다. 이런 심령 가운데 온전히 주님의 성령의 역사만이 나타나길 기도했습니다.

사역 첫째 날, 내 속에서 사단은 “너, 잘 전해야지” “내가 잘해야지” “착해야지” 등의 교만과 율법으로 나를 속이며 진실되지 못한 모습으로 그 어떤 성과를 잡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령님만을 의지하며 성령께서 싸워 주시길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나 마음에 자유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사람 한사람에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자, 성령의 감동과 능력을 전해 받은 영혼들이 감동하며 믿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나라 언어가 서툴렀는데도 말입니다. 나 같은 부족하고 교만한 사람을 쓰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복음을 듣는 자들과 동일한 감동을 주심에 감사했습니다.

계속 나를 통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자 내속에는 교묘하게도 나의 의와 교만한것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때도 Q1말씀을 통해 나를 다시 한번 낮추시며 내가 누구였는지 기억케 하셨습니다. “내게 영광이 아니요 수치가 가득한즉 너도 마시고 너의 할례 아니한 것을 드러내라 여호와와 오른손의 잔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더러운 욕이 내 영광을 가리우리라”(창 2:16). 하나님은 내속에 더 깊이 감추어진 어두운 것을 드러내길 원하셨는데 나는 오히려 나의 의와 인정이 더 드러나기를 바라고 그에게 나인 양 착각하며 성령이 더 이상 머무르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나의 마음을 통해 내 가슴은 찢어졌고 나의 연합함과 죄악이 드러났습니다. 그러자 나의 마음은 가난하게 되었고 애도했으며 다시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서는 이렇듯 나의 심령을 성결케 하사 내속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도구로 다시 한번 나를 깨끗케 하셨습니다. 또한 주의 사랑의 감동이 내 속에 충만하여 팀원들을 사랑하는 말까지 주셔서 끝까지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팀원들과 함께 기쁨과 감사로 사역할 수 있어서 즐거웠고 감사했습니다.

또한 특별히 감사한 것이 있습니다. 현지에서 만난 운전기사인 예수님을 만난 지 5년이 되었었는데 운전할 때, 사역지 정할 때, 약취후 때문에 우리팀원이 걱정할 때 등 우리 팀원들보다 더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 우리팀원과 같이 기쁨으로 그 사역에 동참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팀원들을 통해 그 운전기사를 그 땅의 현지 선교사로서 준비하시기를 보셨습니다.

아직도 더 구체적으로 할말은 많지만 이번 줄이며 마지막으 로 아무리라도 언약하고 언약한 자를 쓰시고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모든 것을 주장하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김효현(청년1부)

✎ 현재 사역중인 선교팀

기간	팀	팀장
11월 2일(월)~11월 10일(수)	7교구 8지역	이만경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라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 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골 4:3)

특집: 청지기훈련을 마치고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금요일마다 교회에 가는 습관이 생길 것 같다

예수님, 이번 청지기 훈련동안 저는 항상 수로보님께 여인과 저를 비교했습니다. 과연, 나라면 이럴 때 어떻게 했을까? 그녀를 향한 예수님의 첫 번째 답변은 침묵이었습니다. 그녀를 거들떠 보지도 않으셨습니다. 냉혹해보였죠. 그 여인은 그대도 부르짖었습니다.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과연 저라면 어땠을까요? 아마 생명을 구원받고자 하는 마음보다도 내 자존심을 더 중히 여겨 주님의 태도에 불만을 가졌었겠죠.

그녀를 향한 예수님의 두 번째 답변은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면 복음을 줄 수 없다"였습니다. 냉정했죠. 저 같은데 절망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었죠. 부르짖었습니다.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녀를 향해 예수님은, "개에겐 자식의 음식을 던져줄 수 없다"라며 그 여인을 게에 비유하여 매우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서운 채찍 같았죠. 저라면, 그곳에서 아마 아무 말도 못했을 겁니다. 분통함에 떨었겠죠. "그렇게 주님께 외쳤건만, 주님은 내게 왜이러나?" 하면서 원망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믿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당시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 것이면 개에도 좋습니다.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 저도 이 같은 믿음을 소유하고 싶습니다.

생명을 갈망하는 심령의 믿음을 갖고 싶습니다.

예수님, 나는 당신의 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개가 될지언정, 사단의 나라의 왕은 싫습니다.

예수님, 당신을 위해서라면 개라도 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언제나 순종하는 개가 되게 해주세요.

그러서 사단을 향해 예수의 이름으로 짓게 해주세요. 믿음의 승리를 주세요.

예수님, 십자가를 향하는 저의 길에 공포도 두려움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해주세요.

예수님, 언제나 십자가를 바라보며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도록 붙잡아주세요.

예수님, 저도 예수님처럼 단 한 영혼을 위해서라도

헌신할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믿음 주세요.

머리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주와 함께 가겠습니다.

예수님, 저의 기대로 하는 맹목적인 기도가 아니라

믿음으로 하는 기도가 제 믿음에서 끊이지 않게 해주세요.

예수님,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주님앞에 다시 이 땅에 오실 날을 기다리며

깨어 기도하는 청년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 어느 무엇보다 주님만큼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구요?

예수님은 나를 위해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부활하심으로 저에게 믿음의 승리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구세주이시며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박준구(대학부)

'믿음의 승리'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청지기 훈련에서 '수로보님께 여인'이 나에게 안겨준 것은 생각보다 훨씬 큰 것이었다. 평소라면 그냥 지나치고 읽었을 부분을 목사님이 하나하나 읽어주시자 내가 점점 벗겨져 가는 듯한 수직심을 느꼈다. 그 실절적인 지적들을 통해 또 한편에서는 또 다른 희망이 생겼다. 나의 죄를 바라보면서 동시에 주님의 은혜를 느낀 것이다.

수로보님께 여인과 예수님의 신분상의 극명한 대립은 흡사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만남과 같았고, 수로보님께 여인의 갈망하며 매달리는 간구와 그것을 외면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지난 주일 설교였던 야곱과 하나님의 씨름을 생각나게 했다.

수로보님께 여인, 성경 속에서 엄연히 존재하면서 나의 관심을 받지 못하였던 그 여인에게 그렇게 큰 뜻이 있었다니. 내가 무엇인데 그저 멀리서만 성경을 바라보았던가. 나는 그렇게도 고만하였던 것이. 내 자아가 깨어지고 부시시는 청지기 훈련이었다. 험잡는 그녀가 나를 부수었고 사랑이 무한하신 예수님이 나를

10월 29일 청지기 훈련에 참석했다. 난생 처음 가보는 것이기도 하거니와 사람들이 몇 명 없어서 조금만 무슨 것을 해도 눈에 띄진 않을까 하는 생각에 많이 긴장도 있었다. 그리고 선생님 앞에서 혹시 졸지나 않을까하는 생각에 고민도 했다. 여러 가지 두려움도 생겼다. 자꾸 걱정이 되는 마음을 안고 본당 2층으로 올라갔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원치 않으셨나 보다. 어찌어찌하여 예배는 시작되고 기도를 하게 되었다. 그때 난 하나님께 기도했다.

"하나님, 내일 할 '시간관리'의 시작과 끝이 잘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저는 오늘 청지기 훈련을 통해 무엇보다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안 된다면 2시간 동안만이라도 제가 잠에 들지 않도록 해주세요."

은혜 받기를 원하지만 그것이 안 된다면 최소한 잠들지 않게 해달라는 나의 간청을 하나님은 들으셨나보다. 청지기 훈련을 통해 은혜도 받았고, 또한 자기도 알았기 때문이다. 이번 청지기 훈련을 통하여 정말 많은 것을 느꼈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무언가가 마음에 와 닿기도 하였고 듣다보면 내가 그 설교의 내용을 실제로 보고 있는 그런 관찰자가 되기도 하였다. 그리고 설교내용이 책자로 나와 쉽고 재미있어서 좋았다. 처음에는 어려울까봐 내심 걱정했는데 생각보다 따분하지도 않고 주일 설교 내용보다 머리에 잘 정리되었다. 이제는 금요일마다 식구들을 따라 교회에 가는 습관이 생길 것 같은 기분이다.

박연경(중등1부)

굳건한 믿음 주세요

이번 청지기 훈련 설교 제목은 '믿음의 승리'였다. 이번 청지기훈련의 말씀들을 보면서 느낀 점이 있다. 예수님께서는 두로와 시돈 지방에서 외척자들과 싸우시다가 그곳을 떠나 숨으려고 하셨지만 숨으실 수 없으셨다. 예수님께서는 믿음을 원하셨고, 갈릴리로 돌아가 복음을 전파하시기를 원하셨다. 그때 수로보님께 여인이 찾아와서 귀신들린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간구하였다. 그 여인은 유대인도 아니었고 신택받은 민족도 아니었지만 믿음이 강했다. 수로보님께 여인의 간구에 예수님께서 침묵하시고 간구를 거절하셨다. 심지어는 그 여인을 책망하시며 '개'라고 말씀하시니까지 하셨다. 그러나 수로보님께 여인은 오히려 부스러기 복음이라도 받았더라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였다.

이 말씀을 들으며 생각해 보았다. 만약 내가 '개'라는 소리를 들었다면, 내가 수로보님께 여인이었다면 어떤 행동을 했을까? 수로보님께 여인은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고 간구하였다. 믿음이란 것은 아주 기초적인 것이며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요구하시는 것이다. 수로보님께 여인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끝까지 믿음으로 간구할 수 있었던 것이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으며 수로보님께 여인처럼 굳건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가 되어야겠다고 느꼈다.

하나님 아버지, 수로보님께 여인처럼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어떠한 시련에도 쓰러지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을 따르며,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아멘.



김성호(중등3부)

환희와 감동의 청지기 훈련

다시 감싸주셨다. 환희와 감동의 청지기 훈련. 그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다. 이제 나에게 주어진 말씀을 삶에 적용하며 살아가자였다. 이제 시작이다.

청지기로서의 삶. 그것은 바로, 오늘 내가 보았던 여인처럼, 어떠한 모습, 어떠한 현실,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예수님 앞에서 간구하고 기도할 수 있다면, 그 앞에서 멀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으로 감사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다. 아무 것도 아닌, 민지타일러만도 못한 나의 삶 속에 거룩하고 아름다운 주님의 진정성 손길에 역사하신다는 생각에 오늘도 잠을 이루지 못할 생각이다. 정말 감사하고 참 기쁨이 넘친다.

청지기 훈련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나를 돌아보았고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에 감사했다. 이 기쁨을 날마다 누리기를 소망한다. 이 즐거운 복음을 직장동료와 친구들에게 전해하겠다. 우리 예수님이 정말 최고인걸! 아멘!



김 국(청년1부)

교회탐방 40 **폴무볼**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욥 23:10)

우리들은 모든 것들이 비교되고 우열이 가려지는 경쟁 사회에서 살고 있다. 그 가운데 있는 대학 입시는 사람의 가치를 결정하는 큰 판단 기준이 된다. 이런 질서가 당연하게 생각되는 현실 속에서 재수, 삼수생들은 자연스럽게 외면당하기 마련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와는 다른 지평이어서 싸움 퇴수는 놀라운 비밀이 담겨있다. 이번 주에는 소외되고 가난한 최인들을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며 대학 입시를 준비하고 있는 ‘폴무볼’식구들을 찾아와 보았다.

— ‘폴무볼’에 대해 소개해 주세요?

“처음 폴무볼은 재수기간 중 대학부 집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지체들을 위해 만든 모임입니다. 하지만 굳이 그런 기준을 두는 것은 아니고 입시를 준비하는 지체들이면 누구나 함께 모여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습니다. 매주 일 10:30~12:30에 제2교육관 3층에서 모여 함께 찬양하고 말씀을 나누고 기도합니다. 예전에 재수를 경험한 선배 엘펠들과 입시를 준비하고 있는 회원들이 함께 모이고 모임에 참석하는 인원은 대략 13~15명 정도입니다.” (박민준 엘펠)

— 왜 모임이름이 ‘폴무볼’인가요?

“저도 경험을 해 봤지만 입시를 실패하고 다시 공부한다는 것은 정말 외롭고 힘든 일입니다. 자신을 냉정하게 돌아보게 되는 쓰디쓴 인생의 시간이지요. 이런 시절은 엄청난 임플지만 크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서는 우리를 연단하시는 커다란 풀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사도들과 메삭과 아벨레고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는 믿음으로 들어갔던 폴무볼과 비슷합니다. 오래 전 선배들이 지은 이름이라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폴무볼이라 이름 지은 것 같습니다.” (박민준 엘펠)

— 공부하는 이유 (대학을 가려는)는 무엇인가요?

“그것을 알리기 위해 아직 고민 중에 있습니다.” (이영옥)

— 입시를 준비하며 읽은 점이나 좋은 점이 있다면?

“입시를 준비하면서 그다지 읽지는 않았습니다. 오ierer 개인적으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을 많이 가질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주님을 더욱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신재원)

“모든 것이 합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이 기억납니다. 무어라 구체적으로 말할만한 것은 기억하지 않지만, 입시를 준비하는 기간 동안 내가 안 좋다고 생각했던 여러 가지 문제들도 지금 돌아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한복 엘펠)

퍼)

“긴 입시 기간을 돌아보면 그 시간은 하나님과 나를 찾아 떠났던 여행 같습니다. 삼수를 하기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계시하는 한데 도대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 몰랐지요. 그러나 수험기간 동안 많은 시간을 보내며 하나님과 나와 관계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들은 내 인생의 절묘의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영옥)

— 입시기간동안 주일은 어떻게 보냈는지? 토요일에나 주일 예배시간이 아깝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까?

“저는 고등부를 졸업하고 대학부 토요일 집회를 초빙받아 나왔습니다. 계속 나갈 용기가 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집회에 가지 않은 시간 동안 공부를 열심히 한 것도 아니었는데 말이지. 후에 주위 몇 분의 권유로 집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집회에 참석하고 친구들과 고민도 나누고 함께하는 것이 공부를 한다고 해야 하는 것보다 좋은 것 같습니다. 입시에 따른 불쌍한 영혼들 모두 폴무볼로 오세요.” (홍성애 엘펠)

“저는 재수, 삼수 때 집회에 별로 참석하지 못하고 마음이 닫혀져 있었습니다. 그런 힘들고 외로운 상황 가운데 폴무볼 선배들이 학원을 찾아오고, 문자를 보내주는 등의 사랑에 많은 힘을 얻었습니다.” (이영남 엘펠)

— ‘폴무볼’에서 엘펠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는 삼수를 했습니다. 그간에는 교회를 안다녔는데 재수하면서 종영교회로 알게 되었고 약원수업을 마치고 겨우 대학부 성경공부모임에 참석할 수 있었습니다. 솔직히 삼수하면서는 주일 예배도 갈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런 저를 선배들이 챙겨주고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부족하고 잘못된 부분들을 지적하고 권면해주었습니다. 그런 사랑으로 지금 제 마음을 버리지 않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 감사해서 저도 그런 사랑을 나누려 엘펠를 하게 되었습니다.” (강연우 엘펠)

— 담당 전도사님에서도 안 맡으셨습니까?

“저는 이곳에 온지 얼마 되지 않았고 재수를 경험하지도 못해 여러 지체들의 마음을 온전히 이해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명확한 진실이 있습니다.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결과를 중요시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도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지혜가 적어 앞으로 빨리 나가려고만 하지만 그런 것이 결코 빠르고 볼 수 없습니다. 입시를 다치 준비하는 이들에게 당당한 현실은 힘들고 두려울지 모르지만 모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믿음의 경주를 하길 바랍니다.” (백경성 전도사)

(편집실)

다음 주일 찬송

383장 “환난과 핍박 중에도”

다음 주일 찬송 “환난과 핍박 중에도”는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있는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불쌍하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심일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라는 말씀을 배경으로 작시되었다.

이 찬송의 작사자 프레드릭 윌리엄 페이퍼(F. W. Faber, 1814-1863)는 영국 요크셔의 철학자 칼빈주의 신앙가정에서 태어났다. 옥스포드 대학을 나온 그는 1838년 “영국 교회의 옛 것들”이라는 제목으로 로마 가톨릭 교회에 대하여 매우 논쟁적인 책을 출판하였다. 이 찬송은 그가 1849년 런던에서 펴낸 찬송가집 ‘예수와 마리아’에 실렸던 것이다.

이 찬송은 히브리스 12장 1절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라는 말씀을 기억나게 한다. 이런 믿음의 신앙은 몸에서 무거운 돌을 달아 몸에 던져 준 순교의 십자가를 몸 속에서 끝까지 신앙을 지닌 폴리갑과 같은 사람들을 통해 볼 수 있다. “어두운 감옥 속에서도, 불, 칼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변치않는 신앙을 지닌 믿음의 선조들, 그러나 마음과 양심은 자유로웠네. 우리의 모든 싸움에도 원수까지라도 사랑할지니 인자한 말과 행실로 이 신앙 전파리라. 거룩한 믿음으로 죽기까지 주님을 신실히 섬기리라”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지닌 신실한 성도들을 기억하자. 그리고 한 주간 동안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예배를 준비하도록 하자.

(찬양위원회)

새·가·족·을·영·합·하·니·다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2757	윤상희	19	청년1부		2772	조익남	3	장년1부	
2758	김갑식	13	에바다부	박민준(1)	2773	임대현	19	청년1부	변의현(6)
2759	김정희	19	고등부	권도형(1)	2774	안진자	3	장년1부	우승영(4)
2760	박은영	14	청년1부	김무수(16)	2775	이명화	7	장년2부	안창덕(1)
2761	박은경	19	청년1부	김무수(16)	2776	권성연	19	청년2부	정진호(1)
2762	최현숙	2	장년2부	이인숙(1)	2777	한승범	19	장년1부	이강근(15)
2763	임준규	19	고등부		2778	윤미경	12	청년2부	양인숙(17)
2764	임지희	19	대학부	채임숙(15)	2779	최광현	19	회신부	이강근(15)
2765	이해중	14	청년1부	김현근(6)	2780	전재훈	4	장년1부	신동자(1)
2766	차도근	18	장년1부	하민자(18)	2781	이경희	4	청년2부	신동자(1)
2767	고정광	18	장년1부	하민자(18)	2782	윤미경	19	청년1부	
2768	박선희	2	장년1부	하민자(18)	2783	염상호	18	장년1부	김효정(18)
2769	김진주	19	고등부	권도형(1)	2784	김유준	19	청년2부	김남욱(1)
2770	김지영	19	고등부	장재규(4)	2785	김수진	4	고등부	천명근(4)
2771	정구한	19	고등부	장재규(4)	2786	김신영	16	청년2부	조규호(1)

* 찬양교회의 한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본당 203호 새가족 등록카드 오시기 바랍니다.*

교 회 소 식

모임

1. 정기당회
일시: 10월(수) 수요2부 예배 후
장소: 당회실
2. 감사 2차외 월례회
일시: 10월(수) 수요1부 예배후
장소: 양바우실
3. 안수집사회 총회
일시: 오늘 15:30
장소: 교육관 201호
4. 경질전도회 총회
일시: 12월(금) 17:30
장소: 본당 112호
5. 군전도회 총회
일시: 12월(금) 18:00
(식사, 만나홀 1700)
장소: 교육관 207호

별세

1. 이영자 권사 오인근 은비 안수집사의 부인, 1교구/10월 26일 별세, 28일 장례
2. 이준재 집사 김동주 집사의 모친, 4교구 방배4구역/10월 29일 별세, 11월 1일 장례
3. 설창현 성도 안숙실 은비 권사의 남편, 성직직 집사(17교구)·설진희 집사(4교구)·설용 집사(15교구)의 부인, 15교구 신대방1구역/10월 30일 별세, 11월 1일 장례
4. 안중순 성도 11교구 창선구역/3일 별세, 5일 장례

결혼

1. 추동원 군 (추병창 안수집사, 김필분 권사의 아들, 8교구)와 이윤경 양 (이대호 형, 최정현 씨의 딸, 시 02-517-7070)

- 예배 장로(교회) / 9월(화) 13:00 갈릴라움
2. 순문호 군 (손준영 성도, 김복순 성도의 아들, 장흥교회)와 노혜선 양 (노기철 집사, 김연수 권사의 딸, 17교구) / 11월(목) 15:00 갈릴라움
 3. 이성훈 군 (이병배 성도, 김양순 성도의 아들, 타고교회)와 박희정 양 (박영호 집사의 딸, 12교구) / 13일(일) 17:00 의도동 중소기업회관 2층
 4. 함우진 군 (안숙자 집사의 아들, 6교구)와 정준미 양 (장연태 씨의 조카, 19교구) / 13일(일) 15:00 구웨딩센터 (대우빌딩 6층)
 5. 최진영 군 (최박종 집사, 박영숙 권사의 아들, 9교구)와 권주희 양 (권학형 형, 김진희 씨의 딸) / 13일(일) 16:00 래퍼웨딩홀 2층 ☎ 02-517-7070

◆교구위원회 헌신예배

일시: 11월 10일(수) 수요2부 예배
장소: 본당

◆'금요집회 찬양곡 모음' 제작

'금요집회 찬양곡 모음'이 테이프와 CD로 제작되어 사무국에서 보급되고 있습니다. 이번 찬양곡 모음은 금요집회 설교 중 김성관 위임목사님이 부른 찬양곡들을 모은 것입니다. 위임목사님의 강요에 담긴 교백의 찬양들을 생생한 육성으로 들을 수 있도록 제작하였습니다. 이 찬양곡들의 내용을 철학에 대한 소양과 감사가 충현의 모든 성도를 가운데 늘 차고 날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새벽기도회 담당

	8(월)	9(화)	10(수)	11(목)	12(금)	13(토)	14(주일)
설교자/기도자	김성관/김광남	조규오/김병권	최창규/김종홍	이재영/박상대	이경준/김경환	이창수/김경희	안치원/이복순

예배담당 안내 (11/10-11/14)

날짜	예배	찬 양	사회	기도	설 교
11/10	수요 I	크레에빠진 나를 (호산나 찬양대)	고광환	한두열	메시아의 증거를 마 27:45-54) 김성관 목사
11/10	수요 II	예수 다면 예수 (세로암 찬양대)	이종대	김은호	십자가를 사랑하라 (빌 3:17-21) 이창수 목사
11/12	금요집회	13교구 탁아부/클라렛 김은규/바리톤 오홍균	고광환		김성관 목사
11/14	주일 I	(예배 전 찬양)	최창규	김구영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것들 (요 16:33) 이종대 목사
11/14	주일 II	주 날개 밑 내가 편히 쉬네 (호산나 찬양대)	정진호	황민만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것들 (요 16:33) 이희석 목사
11/14	주일 III	주님의 목자 되시니 희열로써 찬양한다 (호산나 찬양대)	류병희	최윤덕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것들 (요 16:33) 김성관 목사
11/14	주일 IV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되시라 (호산나 찬양대)	최정현	정철환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것들 (요 16:33) 이현덕 목사
11/14	주일 V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되시라 (호산나 찬양대)	나광영	함철주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것들 (요 16:33) 김성관 목사
11/14	주일 찬양	아멘 주창단 밴드/클라렛 호산나 찬양대	이경준	송두섭	성령의 시기하심 (막 4:5-10) 고광환 목사

예배 및 집회 안내

구 분	시 간	장 소
주일 예배	I 오전 7:00	본 당
	II 오전 9:00	본 당
	III 오전 11:00	본 당
	IV (수화, 외국어 동시통역 예배) 오전 1:00	본 당
	V (물음에 대답하는 예배) 오전 3:00	본 당
찬양예배	오전 5:00	본 당
수요예배	I 오전 11:00 II 오후 7:00	본 당
금요집회	오전 7:00	본 당
세례기도회	오전 5:00	본 당

기도회 안내

집회	시 간	차 량
최초집회	오전 11:00	오전 10:00
금요찬양	오전 10:30	본당 앞 출발
		금요집회 후
		본당 앞 출발

구 분	시 간	장 소	구 분	시 간	장 소
영 아 부	I 8:30 9:00	교육관 110호	청 년 2부	오후 12:10	교육관 501호
	II 9:00 11:00	교육관 110호		오후 1:10	교육관 507호
유 아 부	오전 10:50	교육관 201호	장 년 2부	오후 12:30	교육관 407호
유 지 부	오전 10:50	제2교육관 1층	장 년 3부	오후 12:30	교육관 307호
유 년 부	오전 10:30	교육관 307호	소 방 부	오전 12:15	갈 리 리 홀
초 등 부	오전 10:30	교육관 507호	신촌가정부	오후 12:15	교육관 204, 205호
중 등 1부	오전 9:00	교육관 301호	사 랑 부	오전 1:00	복자관 지하1층
중 등 2부	오전 9:00	교육관 401호	예배다부	오전 9:00(약 2부 100명)	교육관 207호
중 등 3부	오전 9:00	교육관 501호	탁 아 부	오전 9:00 오후 2:00	교육관 102호
고 등 부	오전 9:30	제2교육관 4층	새가족양육부	1호선 9:15 1호선 12:15	갈릴리움, 메디나홀
대 학 부	토, 오후 4:00	제2교육관 4층	출현이전집회	주간교육	출현 복자관
청 년 1부	정오, 12:00	제2교육관 4층	청년성경인양교육	주간교육	출현 복자관
			국제화국인양교육	오전 11:00	아 린 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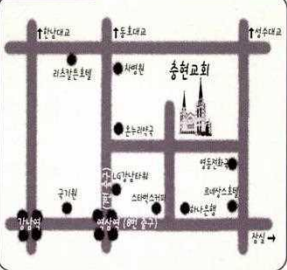
오전 11시에 드리는 주일 1부 예배는 영어, 중국어, 일본어 및 수화로.

오전 1시에 드리는 주일 1부 예배는 스페인어, 중국어, 몽골어, 러시아어, 힌디어, 인도네시아어 등으로 통역합니다. Simultaneous translations in English, Chinese, Japanese and Sign Language are available at the One O'clock Worship Service, and Sri Lanka, Chinese, Mongolian, Russian, Hindi, and Indonesian are also available at the Evening O'clock Worship Service.

11월 충현 기도의 향

1. 위임목사님의 사역을 성령께서 통치하시므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사용하시며, 믿음을 증거하시길 때마다 십자가 복음만 전하는 봉로가 되게 하소서.
2. 영원 전부터 감추어 왔던 십자가 복음의 비밀이 예배 때마다 담대히 선포되게 하시며, 충현의 모든 성도들이 천국복음을 확신하며 그 복음을 자랑하게 하소서.
3. 2005년도 단기선교 계획과 CMIC 후원이 하나되는 뜻 가운데 진행될 수 있게 하소서.
4. 충현교회의 단기선교사역을 통해 복음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더 깊이 알아가며 은혜 안에서 자라게 하소서.
5. 충현의 모든 성도들이 날마다 삶 속에서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전도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6. 모든 새가족들이 돌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십자가의 복음을 확신하며 믿음 안에서 자라게 하소서.

교회 외시는 길



성 · 기 · 는 · 분 · 들

■ 위임목사 김성관

■ 사무진료

- 김진철 김은호 노광현 오진국 이병화
5교구 2교구 4교구 4교구 4교구
- 엄필성 이훈 남우선 정은식 김영길
5교구 5교구 5교구 5교구
- 김종구 최무길 이희석 차진숙 김광남
5교구 5교구 5교구 5교구
- 이종석 안광호 임무현 이갑재 진용호
5교구 5교구 5교구 5교구
- 전동원 이창우 김대환 황영일 한승근
5교구 5교구 5교구 5교구
- 김영수 김현기 원순희 이현우 안두원
5교구 5교구 5교구 5교구
- 황의만 김구영 최윤덕 이계인 박덕양
5교구 5교구 5교구 5교구
- 이태식 정재두 박광규 권명호 조종환
5교구 5교구 5교구 5교구
- 배준식 김달남 이윤호 최지훈 노인영
5교구 5교구 5교구 5교구
- 박철구 정성진 신우성 고계수 갈철형
5교구 5교구 5교구 5교구
- 김은식 이우석 갈철형 김승근 함철주
5교구 5교구 5교구 5교구
- 윤석민 정선원 안석원 이태연 김광국
5교구 5교구 5교구 5교구
- 김중선 임창식
5교구 5교구

■ 부목사

- 이종대 김진철 박인기 류병희 이종철
5교구 5교구 5교구 5교구
- 김영호 이국근 김교성 안창덕 나광영
5교구 5교구 5교구 5교구
- 정진호 김용호 고광환 위건광 김익환
5교구 5교구 5교구 5교구
- 장 훈 임현덕 이희석 최홍철 허종철
5교구 5교구 5교구 5교구
- 안지원 이태복 정준식 양재호 이성진
5교구 5교구 5교구 5교구
- 조규오 최창규 이재영 이경준 이창수
5교구 5교구 5교구 5교구
- 김준호 윤수원 황전섭 정성영
5교구 5교구 5교구 5교구
- 여전도사
- 정연희 신종호 윤인숙 한영준 김연식
5교구 5교구 5교구 5교구
- 홍순애 이옥주 김말자 안태순 김경연
5교구 5교구 5교구 5교구
- 조옥자 강민희 최문선 원은희 김명순
5교구 5교구 5교구 5교구
- 김장자 이수경 김정희 이복순 류희희
5교구 5교구 5교구 5교구
- 한성일
5교구

- 찬양감독 강인규
- 전일지휘자 서준성
- 전일감독자 김소연
- 협력선교사 허요셉